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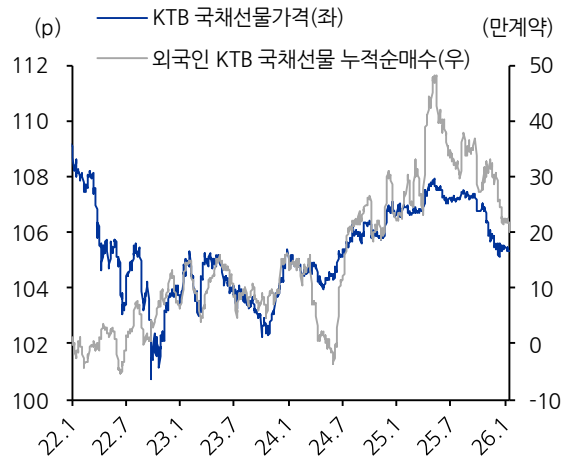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준영_ 02)368-6136_ lee.jy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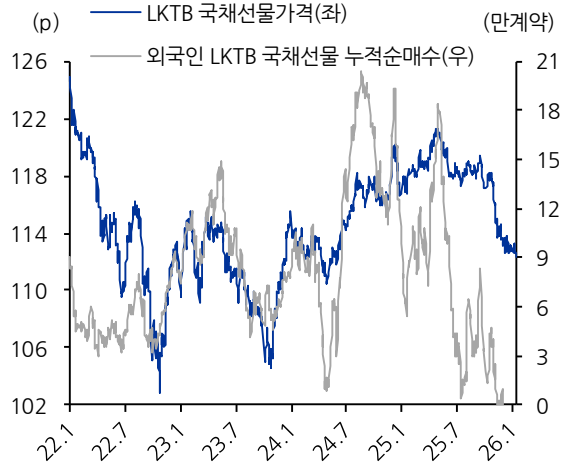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1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96%	-0.7	8.6	4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418%	0.6	6.4	3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2.2	40.9	44.4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34	4.0	-11.0	-10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2.35	5.0	-72.0	-57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12%	-2.3	4.1	4.0
	미국채 10년물	4.133%	-4.7	-1.6	-3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2.1	64.6	67.8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22%	-2.5	1.1	-3.3
	호주국채 10년물	4.701%	1.0	-4.2	-5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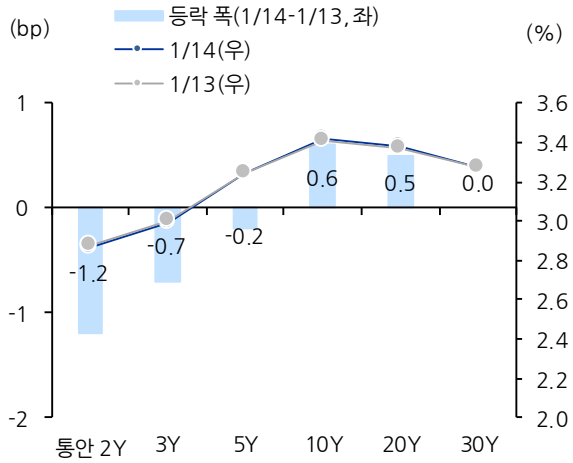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, 장단기물 방향 엇갈리며 커브 소폭 스티프닝 마감.
- 금통위 앞두고 개장 초 상승 출발한 금리는 변동성 제한되며 보합권 내 움직임. 국고 3년물 기준 3%가 인상 우려 등 매파적 태도를 소폭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금리 등락은 제한적이었음.
- 원/달러 환율이 1470원 중후반에서 꾸준히 등락을 보이면서 고환율에 대한 금통위의 평가 경계심도 금리 하락을 제한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.
- 11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0.6% 증가하며 예상치(+0.4%)를 상회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영국 금리 하락 등으로 장기물 위주 금리 하락.
- 미군의 카타르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있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이란에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안전자산 선호 확대. 영국 금리 인하 기대 및 단기물 위주 발행량 증가 등도 영향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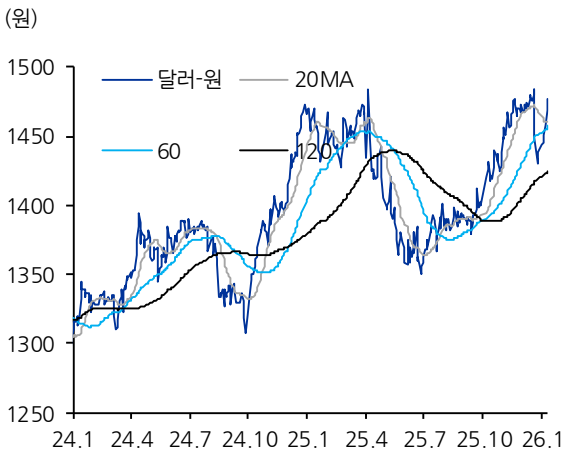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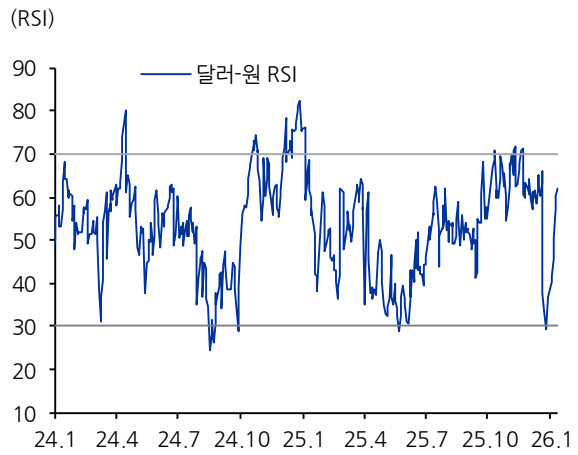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1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77.50	0.3%	2.2%	2.7%
	달러지수	99.11	0.0%	0.4%	0.8%
	달러/유로	1.164	0.0%	-0.3%	-0.9%
	위안/달러(역외)	6.97	-0.1%	-0.3%	-0.2%
	엔/달러	158.59	-0.3%	1.2%	1.2%
	달러/파운드	1.343	0.0%	-0.2%	-0.2%
	헤알/달러	5.39	0.3%	0.1%	-2.2%
상품	WTI 근월물($)	62.02	1.4%	10.8%	8.0%
	금 현물($)	4,632.83	1.0%	4.1%	7.3%
	비트코인($)	97,965.00	3.4%	7.4%	11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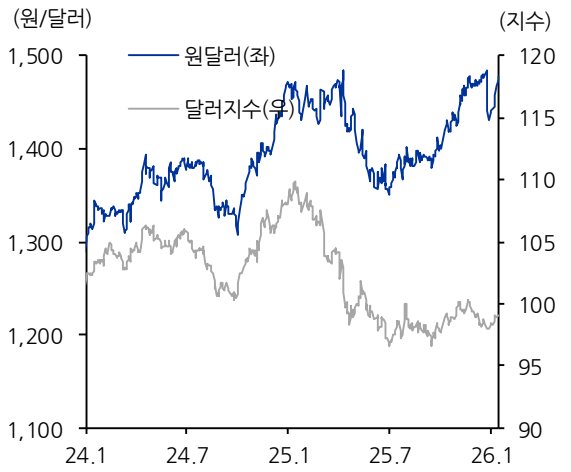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80원 상승한 1,477.5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464.00원 마감.
- 달러-원은 장 초반 1,479원까지 상단을 높인 뒤 숨 고르기에 들어섰으나, 1,470원 후반대에서 마감. 최근 열흘 사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당국 개입 직전 구간에 근접.
- 엔화 약세가 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. 달러-엔은 159엔 중반까지 오르며 고점을 유지. 엔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도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음.
- 수출 네고 물량이 고점 부근에서 출회됐지만 연초 이후 누적된 결제 수요와 해외 투자 관련 달러 수요가 우위. 코스피가 4,700선을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환율 상단을 지지. 다만 금통위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가 추가 상승을 제한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지정학적 긴장과 엔화 강세 속 소폭 하락.
- 미국 일부 은행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고, 미국으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됐으나,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에 주가 낙폭과 유가 하락폭은 축소.
- 달러는 11월 소매판매(+0.6%mom)와 생산자물가지수(+0.2%mom)를 소화하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움직이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 약세 전환.
- 한편 일본 외환당국은 엔화의 과도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함. 일본 당국의 전방위적인 구두 개입 발언에 엔달러는 160엔대를 넘지 못하고 후퇴함. 금일 1월 한은 금통위 개최 예정.